



## 고품질 건설문화를 창조하는 질적 우량기업



### 한라건설

한라건설은 1980년 창립한 이래 고품질 건설문화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국내외 건축, 토목, 주택, 플랜트, 환경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외형적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경영 전반에 총력을 기울여 경쟁력 있는 실질적 우량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간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미래에 도전하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지식경영, 정보화,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한라건설은 최근의 성장에 이어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풍요로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다.

(취재·박병기 기자)

##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 '한라 비발디'와 최첨단 복합공간 '시그마'

한라건설은 사계절 편안함을 표방하는 아파트 브랜드 '비발디'와 주상복합·오피스텔 브랜드 '시그마'를 사용하고 있다.

**vivaldi**  
한라비발디

아파트 브랜드인 '비발디'는 교향곡 사계의 작곡자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로 자연친화적인 공간 구성과 '사계절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테마를 통해 조경시설을 특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사계절 자연의 멋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성공리에 분양을 완료한 동백지구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로 봄놀이 동산, 여름동산, 가을동산, 겨울공간, 그리고 각 계절별 광장 등 조경에 테마를 정해 아파트 주 진입로와 산책로 등에 아름다운 자연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용인 동백아파트 뿐만 아니라 한라건설의 아파트는 그 시공능력과 품질이 어느 아파트에 못지 않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아파트로서 인정받고 있고, 대한주택보증으로 부터 A+(에이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우수거래업체'로 선정되는 등 그 품질력에 있어서도 최고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다.

**Σ**  
S I G M A

또한 시그마는 한라건설의 오피스텔 및 주거형

원룸을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이는 '모든 것을 모아둔다', '점점 더해간다'는 의미로서 함께 할 수록 더욱 편리함과 가치가 더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첨단기술로 완성되는 완벽한 비즈니스공간, 인간을 위한 최상의 주거공간,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적인 쾌적한 공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한라건설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 외에도 한라건설은 전국 각지에 다양한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실버타운,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고객 한 분, 한 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연의 친근함과 첨단기술의 편리함을 평면에 담아 완벽한 품질과 사후관리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 고품질 건축문화의 실현

한라건설은 또한 최신 건축공법과 첨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르코폴로호텔, 미국 발렌시아호텔, 한라대학교, 한국전력 원주연수원, 만도기계 중앙연구소 등의 최첨단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완성하였다. 또한 단순 공간설계의 개념을 넘어서 백년대계의 안목을 가지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시공에 앞장서고 있다.

### 언제나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물

한라건설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와 지하철 등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며, 근래에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등의 국책사업과 목포신외항, 광주지하철, 울진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왔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인프



리를 구축하고 있다.

한라건설 토목공사의 특징은 바로 ‘안전’ 과 ‘품질’ 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 건설의 2002년 환산재해율은 0.14%로 건설업 환산평균 0.57%에 비해 월등한 성적이며(100대 기업 중 10위, 50대 기업 중 3위), 재해율 우수업체로 지정되었고, 3년 연속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4년 연속 PQ 최고 가점을 획득했다.

또한 최고의 품질을 신념으로 자기검열을 하여 인허가 사항 100% 준수는 물론, 하자의 제로화와 공기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첨단기술의 집결체 플랜트, 환경시설

한라건설은 종합적인 시공능력과 까다로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플랜트 부문에서도 탁월한 사업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옥계·사우디 등지의 시멘트공장, 대불단지·태국 등지의 제지공장, 삼호조선소와 한라공조 공장, 만도기계 공장 그리고

석유화학, 에너지, 전자, 통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산업플랜트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플랜트사업을 통한 첨단기술개발과 사업 경험은 환경시설인 소각장, 매립시설,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진다. 소각장 시설은 생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미세먼지까지 철저히 없애는 완벽한 기술로 인근주민들의 신뢰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시설, 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관련 사업 뿐 아니라 탈질, 탈황 등의 신규 기술 및 오염 토양 처리사업까지 참여하고 있다.

### 종합기술서비스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인증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건설업 또한 단순시공에서 벗어나 건설기획,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종합기술서비스의 제공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한라건설은 개발사업전략,



www.halla.co.kr

신규사업전략, EC화전략, 국제화 전략 등 보다 넓고 다양한 사업형태로 건설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라건설은 현재 시공방법 및 공법에 대한 6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프로그램 등록 및 의장등록 등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과제 연구, 국내외 기술교류, 각종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교류에 힘쓰고 있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 환경시스템에 대하여 국제표준인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지난 95년부터 인증받고 있다.

### **발전적 기업문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

한라건설의 특징 중 하나가 가족적 기업문화이다. 이로써 모든 직원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위기 시에는 하나로 뭉쳐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결정

이 빠르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진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하여 IMF 외환위기 당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무구조 또한 건실하게 재편되어 제 2의 도약을 이루고 있다.

한라건설의 노와 사는 상호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노조는 대화를 통하여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창립 이래 무분규로 타결해 왔으며, 회사측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사간의 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기업들이 노사갈등이 첨예한 가운데에서도 한라건설은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했음은 물론, 회사측은 임금인상,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노조측은 스스로 직원들을 독려하여 인당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리경영, 전략경영,  
인재경영을 통한  
2010년 국내 10대 우  
량기업으로의 도약**

지난 2003년 6월, 김홍두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첫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회사, 임직원, 고객간의 신뢰 정착과, 투명한 경영을 통한 윤리경영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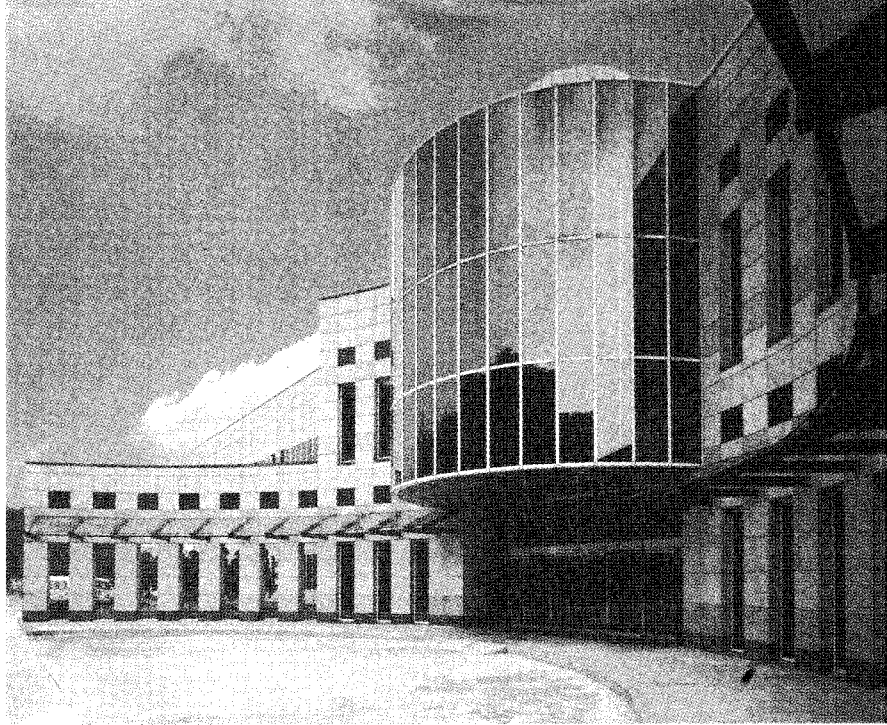
둘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전 임직원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집결시키는 전략 경영의 실천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으로 인재가 모이고, 인재를 키우고, 인재를 머무르게 하는 인재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2010년 국내 10대 우량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제시했다. 10대 우량기업이란 단순히 매출에 따른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 영업이익율, 신용등급 등 제반 경영평가요소를 감안한 질적인 면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이미 한라건설은 지난 2월 한국신용정보, 한국 기업평가 양 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이 회사채 BB+등급에서 BBB-등급으로, 기업어음 B+등급에서 A3-등급으로 각각 상향조정되었으며, 지난 8월에는 피평가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인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신용등급이 각각 A등급과 A+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어 외부로부터 건설한 기업으로 당당히 평가받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증권사 등 외부기관에서는 한라건설이 지



난 2001년 이후 해마다 30% 이상의 높은 수주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올 연말 수주잔고는 1조 7천5백억원에 이르고, 향후 3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사업의 호조세에 마진율 높은 항만 민자 SOC 공사가 실적에 반영되고 있어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며, 최근 인지도 상승과 함께 도로 토목 및 항만토목 도급공사도 수주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34% 증가한 6,004억,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420억, 그리고 수주는 9,377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두 대표이사는 이제 한라건설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벗어나 투자자인 주주와 고객, 그리고 직원들의 이익을 만족시키면서 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시점이라 말하고,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시하고, 건설하고 우량한 기업을 만들어 회사의 성과를 조직구성원과 주주에게 환원시킬 것을 다짐했다. ☺